

난민 유입 시기의 난민·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 변화

김성희(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조교수)

논문요약

이 연구는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15년과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 위협인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수용성 감소는 내국인 개인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위협이나 사회·문화적 위협의 증가 때문이라는 민족경쟁가설이나, 국가 전체에 가해지는 사회심리적 위협의 증가 때문이라는 사회지향적우려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일어난 지역·직업·소득별 수용성 변화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수용성 변화가 민족경쟁가설을 뒷받침하는지 검증한다. 분석 결과, 해당기간 동안 예멘 난민 유입으로 인해 난민수용성 감소 현상이 뚜렷하였고, 이민자수용성 감소 현상 및 일자리 위협인식 증가 현상도 특정 직업군에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수용성 감소가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나 최근 한국인의 난민 및 이민자수용성은 개인별 경쟁 우려보다 사회지향적 우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 위협인식, 예멘난민, 민족경쟁가설, 사회지향적우려

I. 서론

2010년대 중반부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이 큰 규모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왔다. 당시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겪은 대규모 난민 입국사태를 겪지는 않았으나, 2014년 500여 명의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와,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 유입과 달리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은 난민 이슈에 대한 찬반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한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에 따르면, 예멘난민 사태 이전까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50~75%였으나, 예멘난민 사태 이후 2020년 초까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비중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2018년 6월에 시행된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의견 비중이 56%로 찬성의견 비중인 24%보다 앞섰고, 반대 이유로는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것과 테러 및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예멘 난민을 전쟁 난민이라고 여긴 응답자의 난민수용 반대비율은 24%에 불과했으나 불법취업난민이라고 여긴 응답자의 난민수용 반대비율은 무려 90%였다.²⁾

이러한 반응은 소수 집단이 경제적 자원이나 가치관 체계에 실제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수록 내국인의 인식이 적대적이라는 민족 경쟁 이론(ethnic competit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³⁾ 한편, 500여 명의 난민이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 가하는 위협은 실제적인 것보다 사회심리적인 것일

1) 황태연 외,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6권 2호, 2022, pp. 127~166.

2) 정한울,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8년 7월 24일.

3) Coenders, Marcel T. A., *Nationalistic attitudes and ethnic exclusionis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 the country and ethnic immigrants in 22 countries*, Amsterdam: Thesis Publ, 2001.

수 있으며, 이는 사회지향적 우려(sociotropic concerns) 가설로 설명 가능하다.⁴⁾

이 연구는 2018년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인한 난민 및 이민자수용성의 변화를 다룬다. 2014년 한국 정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유입된 500여 명의 난민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주었으나,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에 동의하였다.⁵⁾ 반면, 2018년 예멘 난민 신청자의 입국은 한국 사회에서 찬반논쟁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한국인의 난민수용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 연구는 난민수용성 감소가 실제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 중 어느 위협에 의해 감소되었는지 분석한다. 또한, 2015년과 2018년 사이 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외국인의 비중이 높지 않은 한국에서는 내국인과 경쟁하는 소수 집단은 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인해 난민수용성뿐만 아니라 이민자수용성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2016년 동안 갑작스러운 중동 발 난민 유입을 겪은 국가의 경우, 난민수용성뿐만 아니라 이민자수용성이 감소하고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도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⁷⁾ 한편, 한국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동남아시아계로, 이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보다 한국인들에게 문화지리적으로 친숙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면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는 한국 내 주류 이민자보다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더 높은 위협을 가하는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4)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2010, pp. 61~84.

5) Choi, Eunyoung and Seo Y. Park, "Threatened or threatening?: Securitization of the Yemeni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8, No. 1, 2020, pp. 5~28.

6) 여성가족부,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8.

7) Hangartner, Dominik et al., "Does exposure to the refugee crisis make natives more hosti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3, No. 2, 2019, pp. 442~455.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무슬림계 집단이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연구 결과로 볼 때,⁸⁾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이 난민이 아닌 외국인을 향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 및 이민자 비중은 타국에 비해 아직 작은 편이나 외국인 유입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 252만 명 중,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자가 173만 명을 상회하며 외국인 유입의 정점을 기록했다.⁹⁾ 이 수치는 한국 인구의 약 3%이며, 불법체류자를 고려한다면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외국인 입국자들은 근로 및 취업이 체류 목적인 경우가 많다. 2019년 입국자들을 체류자격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르면, 취업(E-9, H-2, E-1~E-7)비자로 입국하는 체류자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다.¹⁰⁾ 2019년 등록외국인 약 217만 명 중 가장 비중이 큰 체류유형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약 27만 명이었으며,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유형은 외국국적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약 22만 3천명이었다.¹¹⁾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률이 68%로,¹²⁾ 비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을 반대하는 주이유인 일자리 경쟁이나 범죄 가능성은 난민뿐만 아니라 외부집단(outgroup)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이유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저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사소통 문제를 제외하고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대우를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¹³⁾ 이처럼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8) Bansak, Kirk et al., "How economic, humanitarian, and religious concerns shape European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Science*, Vol. 354, No. 6309, 2016, pp. 217~222; Goodwin, Matthew et al., "What do Europeans think about Muslim immigration?" *Chatham House*, 2017, <https://www.chathamhouse.org/2017/02/what-do-europeans-think-about-muslim-immigration>.

9) 통계청,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 2021.

10) 통계청·법무부,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년 12월 19일.

11) 통계청·법무부, 위의 보도자료.

12) 통계청·법무부,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년 12월 19일.

13) 최영미 외,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8-12, 2018.

인식 개선이 더딘 한국 사회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조사의 2015년과 2018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난민사태 발생 이전과 난민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과 경제적 위협인식이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악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수용성 변화가 개인적·실제적 위협에 의한 것이라는 민족경쟁가설을 검증하여본다. 이를 위해 지역과 직업, 소득계층별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난민 입국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주도와 타지역의 수용성 척도 변화를 비교한다. 대부분의 예멘 난민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출도제한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 거주자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제주지역 거주자의 수용성과 비제주지역 거주자의 수용성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예멘 난민 유입이 다양한 수용성 척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 후,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난민 및 이민자 수용성 변화에서의 직업 및 소득변수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만약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에서 더 큰 폭으로 수용성이 감소하고, 난민과 경쟁 관계인 저숙련 직종이나 세금부담이 큰 고소득계층의 수용성이 더 감소했다면 민족경쟁이론으로 수용성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한국인들의 수용성 감소는 사회지향적 우려로 인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별적이다. 먼저, 한 시점의 난민수용성의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한다. 2018년에 발생한 예멘 난민 사태는 예측되지 못한 외생적인 충격이며, 2018년 말에 시행된 설문조사는 이 사태로 인한 인식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인해 난민수용성이 변화했는지, 변화했다면 어떠한 경로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난민수용성뿐만 아니라 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예멘 난민 신청자 유입 기간에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했는지 연구한다. 변화를 지역·직업·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관찰하여 해당 변화가 어떠한 가설로 설명되는지 논의하는 것 또한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점이다.

분석결과,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난민 및 이민자 수용성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인 위협보다 다양성에 대한 우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경쟁가설보다 사회지향적우려 가설이 한국 사회의 난민 및 이민자 수용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장에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III장에서 데이터와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IV장에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고, 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2015년 유럽지역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수용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2012년, 2014,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2014~2015년에 발생한 유럽 난민 사태 이전과 이후 시기의 반이민 정서를 비교한 연구는 난민의 유입이 유럽인의 반이민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⁴⁾ 한편, 2015년과 2016년 사이 급격한 난민유입을 경험했던 그리스 섬 지역 거주자들이 난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협인식뿐만 아니라 이민자 및 무슬림 수용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상반되는 결과의 연구도 있다.¹⁵⁾ 한국인의 난민정서 변화를 다룬 질적연구에서는 시리아 난민과 달리 2018년에 유입된 예멘 난민신청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 “가짜 난민”으로 인식된 것이 반난민정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¹⁶⁾

14) Stockemer, Daniel et al., “The ‘refugee crisis,’ immigration attitudes, and eurosceptic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4, No. 3, 2020, pp. 883~912.

15) Hangartner, Dominik et al., “Does exposure to the refugee crisis make natives more hosti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8, pp. 442~455.

내국인의 반이민정서를 설명하는 경제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이민자와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이다. 이 경우, 저숙련 내국인은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반면, 고숙련 내국인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상승 기대로 이민자 유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러 실증 연구에서 내국인의 숙련도가 낮을수록 이민자 유입 증가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⁷⁾ 둘째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부담이다. 저숙련 이민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음으로써 내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 선진국의 케이스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내국인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에 반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¹⁸⁾

사회·문화적 위협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자국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종교나 관습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회문화적 위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¹⁹⁾ 또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 내국인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테러리즘과 연관시켜 위협인식을 가질 수 있다.²⁰⁾ 한국인은 탈북민에

-
- 16) Choi, Eunyoung and Seo Y. Park, "Threatened or threatening?: Securitization of the Yemeni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pp. 5~28.
- 17)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1, 2001, pp. 133~145; Mayda, Ann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No. 3, 2006, pp. 510~530; Ortega, Francesc and Javier G. Polavieja, "Labor-market exposure as a determinant of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Labour Economics*, Vol. 19, No. 3, 2012, pp. 298~311.
- 18) Hanson, Gordon H. et al., "Public finance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globalization strategi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19, No. 1, 2007, pp. 1~33; Facchini, G. and Anna M. Mayda,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No. 2, 2009, pp. 295~314.
- 19) De Vreese, Claes H. and Hajo G. Boomgaarden, "Projecting EU referendums: Fear of immigration and support for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Vol. 6, No. 1, 2005, pp. 59~82; Lubbers, Marcel and Peer Scheepers, "Explanations of political euro-scepticism at the individu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European Societies*, Vol. 9, No. 4, 2007, pp. 643~669; De Vreese, Claes H. et al., "Hard and soft: Public support for Turkish membership in the EU." *European Union Politics*, Vol. 9, No. 4, 2008, pp. 511~530.
- 20) Azrout, Rachid et al, "Focusing on differences? Contextual conditions and anti-immigrant attitudes"

비해 무슬림 난민에게 더 적대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예멘 난민이 무슬림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용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이다.²¹⁾ 언어 또한 중요한 반이민정서 결정요인이다. 1000여 명의 한국인 응답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프로필에 대한 수용성 실험을 시행한 연구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민자보다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통역을 쓰는 이민자의 수용확률이 11% 포인트 낮으며, 유창한 언어구사능력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이 고숙련 직업에 부여하는 프리미엄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²⁾ 이러한 사회·문화적 위협인식은 학력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다.²³⁾

이민자와 난민은 모두 외부인이지만, 난민에 대한 정서가 갖는 차별점이 있다. 유럽 15개국의 18,000여 명 유권자에게 18만여 명의 난민 신청자 프로필의 수용여부에 대한 실험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중의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신청의 정당성(legitimacy)과 자격(deservingness)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난민의 경우 정치·종교·인종적 탄압으로 인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보다 수용 확률이 15% 포인트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나이, 교육·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질적이었다. 이러한 결과

effects on support for Turkey's EU memb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5, No. 4, 2013, pp. 480~501.

- 21) Bison, Kaitlyn and Timothy S. Rich, "Answering the question: should South Korea accept refugees?" *The Interpreter*, 2018,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answering-question-should-south-korea-accept-refugees>; Rich, Timothy S. et al., "Who is welcom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ns and other refugee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2, No. 3, 2021, pp. 1~13.
- 22) Denney, Steven and Christopher Green, "Who should be admitted? Conjoint analysis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thnicities*, Vol. 21, No. 1, 2021, pp. 120~145.
- 23)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p. 61~84; Hundt, David, "Public opinion,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South Korea." *Contemporary Politics*, Vol. 22, No. 4, 2016, pp. 487~504.
- 24) Bansak, Kirk et al., "How economic, humanitarian, and religious concerns shape European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pp. 217~222.

는 난민 유입이 내국인 개인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국가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즉, 사회지향적 우려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²⁵⁾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시행한 연구와 몇 개의 질적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위협보다 사회지향적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²⁶⁾

이민자수용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먼저, 다수의 초기 연구가 사용한, 향후 자국에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에 대한 선호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민자가 자국민에게 끼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국인이 생각하는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로, 주로 ‘국내 경제에 기여’, ‘범죄율 상승’, ‘내국인과 직업 경쟁’, ‘이민자 보호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 등에 대한 경로로 세분화된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민자의 숙련도가 내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낮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민자가 고숙련 노동자일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고숙련 내국인들도 노동시장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 고숙련 내국인이 이민자수용에 부정적이라면, 고숙련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 가능성 때문인지,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복지지원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성을 연구한 다수의 초기 문헌은 이민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민자 수용태도를 분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이민자 수용성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베이 문항에서 이민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25) Bansak, Kirk et al., Ibid.

26) Denney, Steven and Christopher Green, “Who should be admitted? Conjoint analysis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pp. 120~145; 명석영·최원근, “The cognitive dissonance on refugees in South Korea: The case of the influx of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동북아연구』 제37권 1호, 2022, pp. 75~108; 정지원·남기범, “제주 지역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8호, 2019, pp. 715~724.

지적인 연구에서는 이민자와 내국인을 숙련도별로 분류하여 노동시장 경쟁과 복지 부담 경로를 검증하여 두 경로 모두 미국인들의 이민자수용태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²⁷⁾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내국인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고숙련 이민자를 선호하며, 고숙련 내국인보다 저숙련 내국인이 저숙련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

이주민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는 저숙련노동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최근 연구는 이민자의 특성을 구분하는 추세이다. 1,700여 명의 피실험자에게 탈북자, 조선족, 인도네시아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실험 연구에서는 이민자 특성에 따라 수용태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²⁸⁾ 이민자수용성을 동등한 복지, 이민자의 권리, 차별금지, 숙련노동자의 이민, 저소득이민자 지원 등에 대한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로 분류하고, 이민자를 국제결혼, 저숙련 이민, 숙련이민, 투자자, 탈북자 등의 숙련도와 체류특성별로 분류한 연구에서도 노동시장 경쟁과 세금 부담 경로가 한국인의 이민자수용태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²⁹⁾

선행연구가 제시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상에 따라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도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본 연구는 이민자의 특성을 난민,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로 특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예멘 난민 유입시기에 각 집단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항은 숙련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들의 특성은 비교적 동질적이며 저숙련 노동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현재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16.3% 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27)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p. 61~84.

28) Ha, Shang E. et al., "Group cues and public opposition to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2, No. 1, 2016, pp. 136~149.

29) Chang, Han I.,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2, 2019, pp. 190~210.

고 생각하는 비중은 8.8%,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³⁰⁾ 따라서, 유입되는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자라는 선행연구에서의 가정이 한국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I. 데이터 및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데이터와 분석에 적용된 방법론을 소개한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로 3년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5년부터 2021년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2012년에 만 19~74세 성인 2,500여 명,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4,000여 명, 2021년에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조사의 2015년과 2018년 자료를 사용하며, 만19세~64세 응답자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³¹⁾

국민다문화수용성 3차 조사가 2018년 11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8년 조사는 예멘 난민신청자 입국 이후의 인식을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척도만 활용 가능한 다른 유사 데이터와 달리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 위협인식 등 다양한 수용성 척도를 제공한다.

난민수용성은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적용된 네 척도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이민자수용성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귀하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현재보다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자는 “현재보다 더 늘어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현재보다 더 줄어야 한다” 중에

30) 통계청·법무부,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31) 해당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닌 반복횡단(repeated cross-section)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모집단(한국의 성인 인구)과 표본 크기를 비교해볼 때 중복추출 될 확률은 매우 작다고 판단된다.

선택하게 된다. 난민수용성 척도는 널리 쓰이는 이민자수용성과 같이 유입량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두 척도를 함께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위협인식 문항은 일자리 위협인식과 재정 위협인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자리 위협인식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로 측정 가능하다. 재정 위협인식은 “우리나라에 외국이주민과 외국인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위협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섯 척도로 측정되며, 선택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다. 위협인식 문항은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수용성과 동시에 수용하는(혹은 수용하지 않는) 이유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 유입증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수용성 지표보다 유용하다. 2015년과 2018년의 난민수용성과 이민자수용성을 비교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각 집단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연도별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 비교

	2015 (N=3,561)	2018 (N=3,664)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23	20.01
별로 그렇지 않다	52.96	52.11
대체로 그렇다	35.86	25.96
매우 그렇다	2.95	1.94
“외국인의 수가 현재보다...”*		
감소해야 한다	28.11	22.22
유지해야 한다	52.63	68.89
증가해야 한다	19.26	8.90

주: 국민다문화수용성 2015년과 2018년 조사의 만19~64세 표본을 토대로 작성함. 숫자는 각 조사 표본 별 응답자 비율(%)임. *2015년 조사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응답은 다섯척도(“많이 늘어야 한다”, “약간 늘어야 한다”,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약간 줄어야 한다”, “많이 줄어야 한다”)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응답이 세 척도(“현재보다 더 늘어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현재보다 더 줄어야 한다”)도로 변경되어 분석에서는 연도 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5년의 응답을 세 척도로 통합함.

2015년에 비해 2018년의 난민수용성과 외국인수용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난민수용성이 악화되었다.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8.23%에서 20.01%로 증가하였고,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비중이 38.81%에서 27.9%로 감소하였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의 비중을 합하면 약 72%로, 해당 조사가 2018년 12월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시행된 여론조사의 반대의견보다 더 비중이 높다.³²⁾ 따라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데이터가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인식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이민자의 수가 현재보다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은 28.11%에서 22.22%로 감소하였으나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도 19.26%에서 8.90%로 감소하였고,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해당기간 동안 이민자수용성은 감소하였으나, 난민수용성처럼 극단적 감소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표 2〉는 난민수용을 반대한 표본의 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자리 및 재정 위협인식과,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사회적 위협인식을 나타냈다.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이민자 유입이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일자리 위협인식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인 값에서 변화가 보였다. 위협인식이 전혀 없는 비중이 감소하고(3.40%→2.16%) 위협인식이 매우 높다는 비중이 증가하였다(3.76%→4.81%). 국가 재정 위협인식의 경우 다소 높은 응답이 41.58%에서 45%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위협인식의 경우, 오히려 감소된 현상을 나타냈다. 범죄율 위협인식이 매우 높은 비중이 10.65%에서 7.15%로 감소하였고, 반면 매우 낮은 비중이 0.92%에서 1.85%로 상승하였다.

32)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모르겠다’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표 2〉 국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연도별 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

		2015년 (N=2179)				2018년 (N=2642)			
우호적	이민자 유입*	내국인 실업	국가재정 부담	범죄율 상승	이민자 유입*	내국인 실업	국가재정 부담	범죄율 상승	
	↓	10.33	3.40	1.06	0.92	4.39	2.16	1.06	1.85
		25.93	9.87	12.76	25.55		9.54	13.74	
52.23		34.42	38.00	37.17	69.30	37.02	34.94	38.72	
37.45		32.49	41.58	38.50	26.31	30.47	45.00	38.53	
	3.76	9.50	10.65	4.81		9.46	7.15		
적대적									

주: 국민다문화수용성 2015년과 2018년 조사의 만19~64세 표본 중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표기한 응답자의 각 문항에 대한 인식 비중(%)임.

이처럼 2015년과 2018년 사이 난민수용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이민자수용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경제적 위협인식은 감소폭이 다소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위협인식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보아, 근래의 난민 및 이민자 수용성은 경제적 위협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제주도에서 직접적 난민신청자의 유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의 수용성 변화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사용한다.

$$y = \alpha + \beta year + \lambda je.ju * year + X\Gamma + \epsilon$$

위 식에서 y 는 개인 i 와 시점 t 의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 일자리 위협인식 또는 국가재정 위협인식이며, $year$ 변수는 2018년도 데이터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β 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변화한 수용성 또는 위협인식을 추정하는 계수값이다. λ 는 제주도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2018년에 추가적으로 변화한 수용성 또는 위협인식을 추정하는 계수값이다. 만약 λ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2018

년에 수용성 변화가 더 큼을 의미한다. X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 통제변수로, 성별, 나이, 혼인유무, 직업더미, 소득분위더미, 거주지역(시도)의 도시규모, 외국인 친구 유무 등을 나타낸다.³³⁾

둘째, 일자리와 국가재정에 대한 위협인식은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더미(혹은 소득더미)와 2018년도 더미를 교차하여 직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직업더미와 교차항을 만들 경우,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사용한다. 이 분석에서는 통제변수에 지역더미(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로 구분)를 추가한다.

$$y = \alpha + \beta year + \lambda year * job\ dummy + X\Gamma + \epsilon$$

y는 개인 i와 시점 t의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 일자리 위협인식이며, 2018년도 더미와 직업 더미의 교차항의 계수값인 λ 가 동기간 동안 해당 직업군이 겪은 추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만약 저숙련 노동자 응답자의 값이 양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협인식이 준거 집단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경쟁이론에 따르면 저숙련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및 판매직과 단순노동종사자가 일자리 위협인식이 강할 것이 예상되고, 이 가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³⁴⁾ 소득더미와의 교차항을 추정하는 모델의 경우 종속변수

33) 해당 데이터의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구간으로 표기되어 해당 변수를 실질변수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당 가구소득을 통계청(2020)이 발표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분위 변수를 생성하고 시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5년 데이터는 2015년 4분기의 소득분위 자료를, 2018년 데이터는 2018년 4분기의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소득1분위, 200만원~400만원 미만은 소득2분위, 400~500만원 미만은 소득 3분위, 500만원 이상은 소득 4분위 이상으로 코딩되었다. 2018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소득1분위, 200만원~400만원 미만은 소득2분위, 400~600만원 미만은 소득 3분위, 600만원 이상은 소득 4분위 이상으로 코딩되었다.

34) 직업변수로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완벽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점이 있으나, 다문화수용성조사 응답자의 직군별 지위를 살펴보면 같은 직업군 내에서 대체로 지위가 한쪽에 분포하여 직업변수로 해당 경로를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지위인 응답자가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경우 약 64%, 사무종사자의 경우 94.2%에 이르며, 임시근로자 지위인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2.9%, 4.2%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단순노동자의 경우 상용직이 32%인 반면 임시직이 65%로, 대조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는 난민수용성, 이민자수용성, 재정 위협인식이 된다. 민족경쟁가설이 맞다면 고소득계층일수록 수용성 감소폭이 클 것이다.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량이다.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난민수용성과 이민자수용성이 감소하고, 두 경제적 위협인식이 상승했다. 두 시기 표본의 성별 및 나이, 결혼상태, 거주지역 등의 인구학적 변수 분포는 비슷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2018년 표본에서 소득3분위의 비중이 커졌고, 소득 1, 2분위와 소득4분위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비경제활동 및 실업자의 비율이 낮으며, 사무직을 제외한 직업군의 비율은 비슷하다. 교육수준의 경우, 2018년 표본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다. 2018년 표본이 2015년 표본보다 외국인 친구 혹은 친척이 없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다.

〈표 3〉 기초통계량

변수	2015년 (N=3561)		2018년 (N=366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난민 수용성	2.34	0.67	2.10	0.73
이민자 수용성	0.91	0.68	0.87	0.54
일자리 위협인식	2.96	0.94	3.04	0.92
재정 위협인식	3.37	0.86	3.42	0.85
남성(%)	50.23	-	50.57	-
나이	42.00	12.63	42.51	12.50
가구 소득분위(%)				
1분위	11.77	-	6.44	-
2분위	53.27	-	43.40	-
3분위	20.11	-	41.43	-
4분위 이상	14.86	-	8.73	-
직업군(%)				
비경제인구 및 실업자	28.31	-	22.95	-
관리직 및 전문가	6.04	-	5.10	-
사무직	14.83	-	20.61	-
서비스 및 판매직	38.16	-	38.70	-
농림어업숙련직	2.72	-	2.81	-
기능 및 기술직	7.41	-	8.32	-
단순노동종사자	2.53	-	1.50	-
혼인상태(%)				
미혼	27.07	-	27.76	-
기혼	70.74	-	70.31	-
기타	2.19	-	1.94	-
교육수준(%)				
중졸이하	8.93	-	6.20	-
고졸	39.68	-	40.31	-
전문대졸	19.97	-	20.06	-
4년제대졸	31.42	-	33.43	-
거주권역(%)				
수도권	31.45	-	30.84	-
영남	31.09	-	30.10	-
강원, 충청	19.91	-	21.48	-
호남, 제주	17.55	-	17.58	-
거주지역 읍면(%)	12.41	-	11.46	-
외국인 친구 및 친척 1명 이상(%)	10.11	-	5.08	-

IV. 회귀 분석결과

〈표 4〉는 제주도와 타 지역의 난민수용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이므로 분석에 순서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³⁵⁾ 2015년에 비해 2018년 표본의 난민수용성과 이민자수용성이 낮아졌지만, 일자리 및 재정위험 위협인식은 변화가 없다(2018년 더미). 제주 지역의 일자리 위협인식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제주도 더미), 일자리 위협인식은 제주 지역만 2018년에 타 지역에 비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제주도*2018년). 제주도 거주자가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2018년에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이 더 감소하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1)~(2)열), 일자리 위협인식이 제주 지역에서만 증가한 것을 예멘 난민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취업허가를 내 준 것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경쟁 위협을 상승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난민 신청자의 수가 500여 명에 불과해 약 66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 유입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멘 난민 사태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는 것과, 난민 신청자의 절대적 숫자보다는 난민 유입 자체에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35) 이 장의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모집단의 인구비를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4〉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 변화: 제주와 타 지역 비교

변수	(1) 난민유입	(2) 이민자유입	(3) 일자리위협	(4) 재정위협
제주도 터미	0.054 (0.121)	0.090 (0.139)	-0.216* (0.132)	-0.235* (0.139)
2018년 터미	-0.398*** (0.036)	-0.083** (0.038)	0.009 (0.033)	-0.002 (0.035)
제주도*2018년	0.012 (0.178)	-0.122 (0.189)	0.376** (0.185)	0.071 (0.182)
남성 터미	0.101*** (0.038)	0.187*** (0.040)	-0.066* (0.035)	-0.052 (0.036)
나이	-0.007 (0.013)	-0.001 (0.013)	-0.023** (0.011)	0.005 (0.012)
나이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분위: 준거집단-소득1분위)				
소득2분위	0.053 (0.059)	0.069 (0.076)	0.021 (0.059)	0.143** (0.065)
소득3분위	0.058 (0.065)	0.170** (0.084)	0.009 (0.063)	0.187*** (0.071)
소득4분위 이상	0.063 (0.078)	0.108 (0.093)	0.017 (0.077)	0.078 (0.084)
(직업군: 준거집단-경제활동미참여자 및 실업자)				
전문가	0.041 (0.080)	0.090 (0.088)	-0.132* (0.079)	-0.105 (0.084)
사무직	-0.054 (0.066)	-0.155** (0.068)	0.069 (0.056)	0.034 (0.061)
서비스직	-0.030 (0.045)	-0.018 (0.053)	0.054 (0.042)	0.028 (0.045)
농림어업	-0.064 (0.105)	0.177 (0.113)	0.151 (0.111)	-0.008 (0.117)
기능, 기술직	0.012 (0.074)	0.008 (0.079)	0.150** (0.068)	0.060 (0.071)

변수	(1) 난민유입	(2) 이민자유입	(3) 일자리위협	(4) 재정위협
단순노동종사자	-0.031 (0.114)	-0.014 (0.127)	0.153 (0.113)	0.142 (0.104)
(혼인상태: 준거집단- 미혼)				
기혼	0.070 (0.062)	-0.080 (0.063)	0.027 (0.055)	-0.097 (0.063)
기타	0.201 (0.136)	0.064 (0.130)	0.072 (0.142)	-0.196 (0.127)
(교육수준: 준거집단- 중학교 졸업 이하)				
고졸	-0.034 (0.072)	0.153** (0.071)	-0.185*** (0.065)	-0.039 (0.070)
전문대졸	-0.064 (0.085)	0.141* (0.085)	-0.196** (0.078)	0.017 (0.083)
4년제대졸 이상	-0.035 (0.083)	0.261*** (0.083)	-0.282*** (0.077)	-0.079 (0.080)
외국인친구 더미	0.201*** (0.067)	0.190*** (0.057)	-0.159*** (0.054)	-0.167*** (0.062)
읍/면 거주 더미	0.008 (0.069)	0.037 (0.056)	-0.066 (0.058)	-0.202*** (0.062)
관측치 수	7,225	7,225	7,225	7,225

주: 순서프робит 계수값을 나타냄. 모집단의 인구비율로 보정한 개인별 가중치를 사용함. 괄호 안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외국인 친구나 친척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든 수용성이 높고 위협인식이 낮은 결과를 보이지만, 각 수용성 결정요인의 차이가 더 눈에 띈다. 특이한 점은 난민수용성에 있어서 유의한 결정요인은 성별뿐이라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난민 유입에 우호적이나, 소득, 직업, 교육수준은 난민수용성을 설명하지 못한다((1)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이민자수용성이 높고 일자리 위협인식이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과 대조

적이다. 소득변수가 수용성 및 위협인식과 갖는 체계적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자리 위협인식은 전문가 및 관리직의 경우 다른 직업보다 낮고, 기능직의 경우 높은 결과를 보이지만, 단순노동종사자의 경우 위협인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은 민족경쟁가설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당시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난민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해당 사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일자리 위협인식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의 경쟁에 많이 노출된 단순노동종사자나 서비스·기능직 등의 위협인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재정 위협인식의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위협인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표 5>에서 직업에 따라 나타난 난민 및 이민자수용성과 위협인식 변화를 보였다.

〈표 5〉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 변화: 직업별 비교

변수	(1) 난민유입	(2) 이민자유입	(3) 일자리위협
비경제활동*2018년	-0.220*** (0.068)	-0.021 (0.075)	-0.139** (0.062)
전문가*2018년	-0.871*** (0.130)	-0.311** (0.143)	0.278** (0.138)
사무직*2018년	-0.620*** (0.098)	-0.234** (0.096)	0.146* (0.081)
서비스직*2018년	-0.388*** (0.051)	0.011 (0.055)	-0.041 (0.049)
농림어업*2018년	-0.230 (0.177)	-0.506*** (0.194)	0.826*** (0.183)
기능직*2018년	-0.198* (0.117)	-0.050 (0.112)	0.029 (0.107)
단순노무*2018년	-0.558** (0.217)	-0.425* (0.223)	0.158 (0.204)
(직업군: 준거집단-경제활동미참여 및 실업자)			
전문가	0.351*** (0.100)	0.234** (0.111)	-0.327*** (0.110)
사무직	0.154* (0.080)	-0.047 (0.088)	-0.082 (0.068)
서비스직	0.053 (0.051)	-0.031 (0.063)	0.010 (0.053)
농림어업	-0.061 (0.126)	0.414*** (0.170)	-0.393*** (0.146)
기능, 기술직	-0.017 (0.084)	-0.005 (0.107)	0.064 (0.089)
단순노동종사자	0.088 (0.141)	0.097 (0.159)	0.039 (0.145)
관측치 수	7,225	7,225	7,225

주: 순서프로빗 계수값을 나타냄. 모집단의 인구비율로 보정한 개별 가중치를 사용함. 괄호 안 숫자는 강건표준오차임. 나이, 나이제곱,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더미, 소득더미, 지역더미, 읍/면 더미, 외국인 친구 더미가 통제되었으나 결과를 생략함. *** p<0.01, ** p<0.05, * p<0.1

(1) 열은 난민수용성이 종속변수인 경우 계수값을 나타낸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숙련농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2018년에 난민수용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관리직 및 사무직의 난민수용성 감소폭이 다른 직업군보다 더 큰 것을 볼 때, 난민 사태가 안정적인 직업군에 더 영향을 많이 끼쳤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민자수용성은 관리직, 사무직, 숙련농어업직, 단순노동종사직의 감소폭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컸다((2) 열). 일자리 위협인식도 직업별 변화의 차이가 보인다. 관리직, 사무직, 농림어업숙련직에서 위협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농림어업숙련직의 증가폭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3) 열).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경우 일자리 위협인식이 오히려 2018년에 더 감소하였다. 예멘 난민 유입 이후, 난민수용성뿐만 아니라 이민자수용성 및 일자리 위협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수용하는 대상에 따라 직업별 변화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전문가 및 사무직과 같은, 난민과의 노동시장 경쟁 위험이 낮은 직군에서 수용성이 더 많이 감소한 현상이 관찰된다.

농림어업숙련직은 2018년에 난민 수용성의 변화는 없고 이민자 수용성과 일자리 위협인식에서만 인식이 악화된 유일한 직업군이다. 농림어업숙련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이민자수용성이 높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협인식이 낮은 직업군이지만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난민 유입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의 외국인 취업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2017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정도로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식적 취업보다 비공식적 취업이 더 많다. 2018년 작물재배업 농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만 고용하는 농가의 74.7%가 비공식적으로 고용한 경험이 있고, 내국인도 함께 고용하는 농가의 90.9%가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비공식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빈번하다.³⁶⁾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난민수용성과 이민자수용성 간 직업별 시간변화에 차이가 존재한다. 난민수용성은 2018년에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2015년에 비해 더 감소하였고, 가장 안정적인 직업군인 관리직 및 사무직과 가장 불안정한 직업군인 단순노동종사직에서 변화폭이 가장 컸다. 이민자수용성도 숙련농어업직을 제외하면, 관리직 및 사무직, 단순노동종사직에서 감소폭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직업군은 난민 수용성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난민 유입이 이민자수용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특히,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해당 기간 일자리 위협인식이 2018년에 더 상승하였는데,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인해 기존 이민자와 경쟁관계인 직업군보다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은 직업군에서 일자리 위협인식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분야에서와 같이 2015년과 2018년 사이 난민 유입 외에 노동시장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 직업별 외국인의 비율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2010년대 연도·직종별 외국인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서비스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농업분야는 비공식 취업의 비중이 커서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공식 취업 비중이 적은 관리직과 사무직종에서 외국인과의 노동시장 경쟁이 더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직업군의 위협인식 상승은 난민유입으로 인한 가능성일 수 있다.

36) 엄진영 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18; 엄진영 외,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21.

〈그림 1〉 직종별 외국인 비율(2013~2018년)



자료: 한국인 직업별 취업자 대비 외국인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냄. 통계청(2021a,b)의 연도별 한국인 취업자 자료와 외국인 취업자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구성.

〈표 6〉은 소득에 따른 수용성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난민수용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소득1분위와 4분위 이상인 경우 감소폭이 가장 컸다((1)열). 이민자수용성은 소득1분위 응답자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2)열). 이러한 변화는 재정 위험인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위험인식은 2015년과 2018년 사이 소득계층 별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위험인식은 난민 유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변화의 차이에 비해 소득별 변화의 차이는 난민 유입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표 6〉 난민수용성 및 이민자수용성 변화: 소득분위별 비교

변수	(1) 난민유입	(2) 이민자유입	(3) 재정위협
소득1분위*2018년	-0.548*** (0.107)	-0.533*** (0.142)	0.123 (0.126)
소득2분위*2018년	-0.335*** (0.049)	-0.002 (0.049)	-0.037 (0.048)
소득3분위*2018년	-0.373*** (0.065)	-0.067 (0.073)	-0.020 (0.058)
소득4분위*2018년	-0.589*** (0.127)	-0.152 (0.110)	0.069 (0.122)
(소득분위: 준거집단-소득1분위)			
소득2분위	-0.028 (0.074)	-0.111 (0.085)	0.215*** (0.077)
소득3분위	-0.015 (0.086)	0.017 (0.098)	0.261*** (0.085)
소득4분위 이상	0.084 (0.087)	-0.003 (0.104)	0.111 (0.090)
관측치 수	7,225	7,225	7,225

주: 순서프로빗 계수값을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강건표준오차임. 모집단의 인구비율로 보정한 개인별 가중치를 사용함. 나이, 나이제곱,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더미, 지역더미, 읍/면 더미, 외국인 친구 더미가 통제되었으나 결과를 생략함. *** p<0.01, ** p<0.05, * p<0.1

난민수용성은 소득수준과 직업에 관계없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조세부담이 큰 계층의 재정위협인식 변화가 더 컸다는 증거는 없다. 이것은 예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사회지향적 우려가 부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난민수용성이 안정적인 직업군과 사이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기존에 난민 유입에 우호적이었던 집단의 인식이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 적대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관리직 및 사무직의 이민자수용성 감소 및 일자리 위협인식 상승은, 난민 유입이 난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집단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지향적 우려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석방법으로 사회지향적 우려가 난민수용성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 중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한 의견 변화가 2015년과 2018년 사이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다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응답은 해당 문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일수록 높은 값이 부여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2018년에 각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 확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표 7〉).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다양성 증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확률이 상승한 것은, 해당 기간에 사회지향적 우려가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것이 예멘난민 사태로 인한 변화일지에 대한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7〉 다양성의 국가적 이로움 평가 변화

	(1)	(2)
변수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2018년 터미	-0.145*** (0.036)	-0.119*** (0.035)
관측치 수	7,225	7,225

주: 순서프로빗 계수값을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강건표준오차임. 모집단의 인구비율로 보정한 개인별 가중치를 사용함. 나이, 나이제곱,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터미, 지역터미, 읍/면 터미, 외국인 친구 터미가 통제되었으나 결과를 생략함. *** p<0.01, ** p<0.05, * p<0.1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2015년,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를 통해 예멘 난민 유입 이슈가 있었던 2018년에 일어난 이민자수용성 및 위협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먼저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난민수용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지역, 직업, 소득별 수용성 및 이민자 위협인식의 감소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지역은 난민 유입의 직접적 경로였으나,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난민수용성의 변화가 더 컸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민 유입에 의한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 및 소득 별 난민수용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집단에서 난민수용성의 변화가 2018년에 더 적대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기간에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 위협 경로보다 보편적 경로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동 기간에 이민자수용성 및 일자리 위협인식에 있어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군의 적대적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이것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변화라면, 예멘 난민 사태가 외국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직군보다 안정적인 직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정 위협인식에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동 기간 동안 다양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외국인 수용성, 특히 난민수용성의 변화는 민족경쟁이론보다 사회지향적 우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2018년에 일어난 난민 유입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데이터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기 때문에, 3년의 기간 동안 예멘 난민 사태 외에 다른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면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면 짧은 기간 동안의 인식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난민 유입 전후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한 마이크로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예멘 난민 유입 외의 급증한 다른 유형의 외국인도 없으나, 난민 유입만이 외국인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난민 사태가 2015~2016년에 지속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었다면 2018년의 수용성이 해당 사건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실제로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실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되었다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2018년에 일어난 수용성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인식이 2015년 수준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³⁷⁾ 이는 난민수용성에 급격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의 효과가 코로나19 사태 등의 상황으로 인해 희석되었고, 난민에 대한 수용적 가치관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용성의 변동적 성격은 한국인의 이민자 혹은 난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또한 한국인의 난민 및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개인적 차원의 위협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려와 더 연관이 있다면, 이는 난민을 “가짜 난민”으로 포장하는 언론의 “가짜 뉴스”나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프레이밍을 지양하는 방법만으로도 한국인의 수용성이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37)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22.

참고문헌

- 명석영·최원근, “The cognitive dissonance on refugees in South Korea: The case of the influx of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동북아연구』 제37권 1호, 2022.
- 엄진영 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18
- 엄진영 외,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21.
- 여성가족부,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8.
- _____,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22.
- 정지원·남기범, “제주 지역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 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8호, 2019.
- 정한울,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8년 7월 24일.
- 최영미 외,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8-12, 2018.
-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KOSIS』, 2020.
- _____,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 2021a, 2021.
- _____, “직업별 취업자.” 『KOSIS』 2021b, 2021.
- 통계청·법무부,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년 12월 19일.
- _____,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년 12월 19일.
- 황태연 외,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6권 2호, 2022.
- Azrout, Rachid et al., “Focusing on differences? Contextual conditions and anti-immigrant attitudes’ effects on support for Turkey’s EU memb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5, No. 4, 2013.
- Bansak, Kirk et al., “How economic, humanitarian, and religious concerns shape European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Science*, Vol. 354, No. 6309, 2016.
- Bison, Kaitlyn and Timothy S. Rich, “Answering the question: should South Korea accept refugees?” *The Interpreter*, 2018.
- Chang, Han I.,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2, 2019.
- Choi, Eunyoung and Seo Y. Park, “Threatened or threatening?: Securitization of the Yemeni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8, No. 1, 2020.

- Coenders, Marcel T. A., *Nationalistic attitudes and ethnic exclusionis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 the country and ethnic immigrants in 22 countries*, Amsterdam: Thesis Publ, 2001.
- Denney, Steven and Christopher Green, "Who should be admitted? Conjoint analysis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thnicities*, Vol. 21, No. 1, 2021.
- De Vreese, Claes H. and Hajo G. Boomgaarden, "Projecting EU referendums: Fear of immigration and support for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Vol. 6, No. 1, 2005.
- De Vreese, Claes H. et al., "Hard and soft: Public support for Turkish membership in the EU." *European Union Politics*, Vol. 9, No. 4, 2008.
- Facchini, G. and Anna M. Mayda,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No. 2, 2009.
- Goodwin, Matthew et al., "What do Europeans think about Muslim immigration?" *Chatham House*, 2017, <https://www.chathamhouse.org/2017/02/what-do-europeans-think-about-muslim-immigration>.
- Ha, Shang E. et al., "Group cues and public opposition to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2, No. 1, 2016.
-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2010.
- Hangartner, Dominik et al., "Does exposure to the refugee crisis make natives more hosti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3, No. 2, 2019.
- Hanson, Gordon H. et al., "Public finance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globalization strategi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19, No. 1, 2007.
- Hundt, David, "Public opinion,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South Korea." *Contemporary Politics*, Vol. 22, No. 4, 2016.
- Lubbers, Marcel and Peer Scheepers, "Explanations of political euro-scepticism at the individu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European Societies*, Vol. 9, No. 4, 2007.
- Mayda, Ann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No. 3, 2006.
- Ortega, Francesc and Javier G. Polavieja, "Labor-market exposure as a determinant of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Labour Economics*, Vol. 19, No. 3, 2012.

- Rich, Timothy S. et al., "Who is welcom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ns and other refugee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2, No. 3, 2021.
-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1, 2001.
- Stockemer, Daniel et al., "The 'refugee crisis,' immigration attitudes, and eurosceptic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4, No. 3, 2020.

Abstract

Changes in Koreans'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Immigrants and
in Threat Perceptions after an Influx of Asylum Seekers

Seong Hee Kim(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University of Suwo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Koreans'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immigrants and in threat perceptions after the entrance of Yemeni asylum seekers in 2018 by using the 2015 and 2018 waves of Studies on Kore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 change in natives' acceptability caused by an influx of asylum seekers can be attributed to increased economic and sociocultural threats perceived by the natives, which is related to ethnic competition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decreased acceptability can also be attributed to increased socio-psychological threats perceived by the natives, known as sociotropic concern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immigrants with respect to natives' regions of residence, jobs, and income quintiles. Between 2015 and 2018, the attitudes towards refugee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and job threat perceptions worsened among certain occupational groups. However, the changes were bigger in magnitude among natives with stable jobs, which implies that Koreans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immigrants are influenced by sociotropic concerns.

Keywords: Attitudes towards Refugees,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Threat Perceptions, Yemeni Asylum Seekers, Ethnic Competition Theory, Sociotropic Concerns

투고일: 2022년 12월 22일, 심사일: 2023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7일